

서울

·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.2% 감소, 내림폭은 3개월 연속 줄어

- 전년동월대비 -5.2% = 소매업의 기여도 +1.4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6.6%p

6월 소비경기지수의 감소는 숙박·음식점업의 감소에 기인
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)

·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2.3% 증가, 숙박·음식점업 16.3% 감소

- 가전제품·정보통신, 무점포소매의 소비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며 소매업의 소비경기는 반전

· 6월 소비증가 업종은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기타가정용품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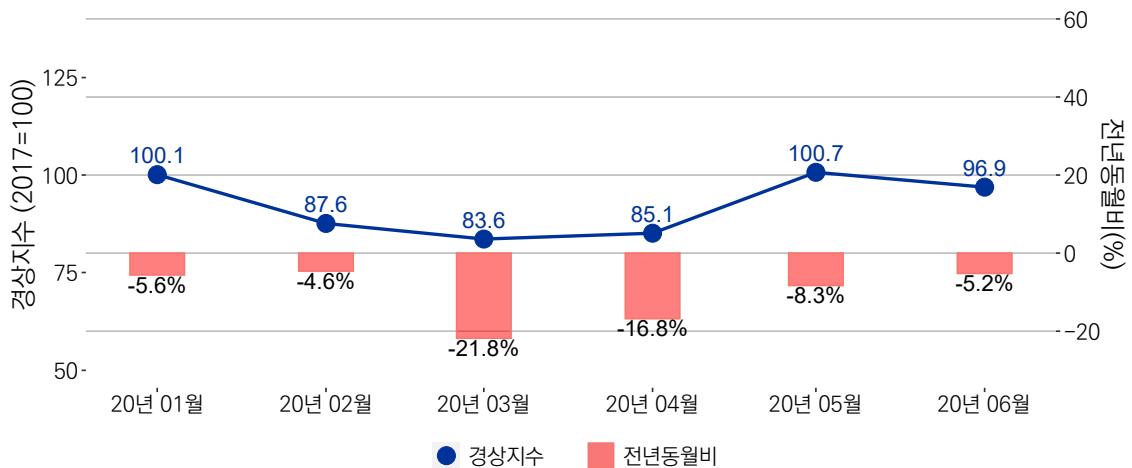
· 6월 소비감소 업종은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 등

- 숙박·음식점업은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나 내림폭은 점차 줄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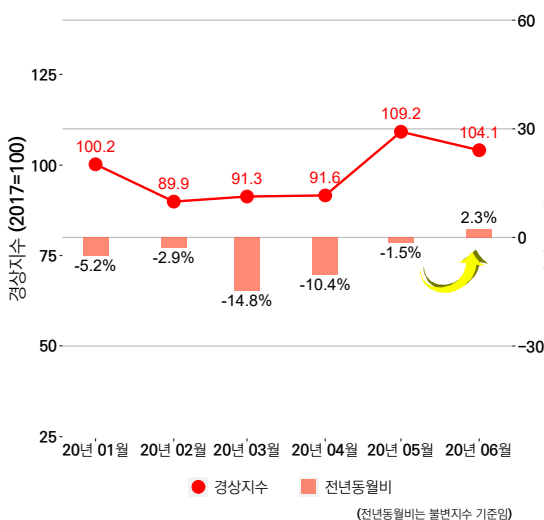
· 6월 소비증가 업종 없음

· 6월 소비감소 업종은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 세부업종 모두가 해당

서울 소비경기지수



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